

고립한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는 데 대한 비고츠키의 문제 제기는 '자기' 개념을 뒷받침하는 일군의 전체를 비판한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비고츠키와 베이트슨은 정신을 '피부의 경계(물질적 표면)를 넘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베이트슨은 '정신'이라는 시스템의 이해와 설명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도끼가 찍어 대는 각각의 일타는 방금 전에 도끼가 나무를 벤 자국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 자기 수정적(즉 정신적) 프로세스는 나무-눈-뇌-근육-도끼-타(打)-나무의 시스템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총체적인 시스템이야말로 정신의 특성을 제대로 묘사해 준다.

그런데 서양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과정(sequence)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 '자기 혼자서 나무를 베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기'라는 독립된 행위자가 있어서 그것이 독립된 '대상(물질)'에 독립된 '목적'을 가진 행위를 했다고 믿는다. (중략)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인칭대명사가 등장하고 그것과 함께 정신이 뒤따라 나온다. 예컨대 '나의 정신'처럼 말이다. 게다가 그 정신은 애초에 인간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 베이트슨, <정신과 자연>

'인지, 기억, 주의, 사고' 같은 언어의 작용은 '내가 ~을 한다'라는 문장이나 인칭 대명사와 연결해서 애당초 개인에 속해 있고 개인에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내가 무엇을 했다'에 대해 베이트슨이 던지는 문제 제기의 무게감을 음미하는 것은 비고츠키가 비판하고자 했던 '고립한 개인'이라는 분석 단위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자.

343×822=?

만약 이 문제를 풀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대부분 계산기 등을 사용해서 281,946이라는 해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답을 산출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343에 822를 곱했다'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보여 줄지도 모른다.

343

× 822

686

686

2744

281946.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문제를 푼 사람은 정말 당신(고립한 개인)인가?' 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대답은 분명 '내가 곱셈을 했다'일 것이다.

이 질문의 진의를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는 계산 절차를 살짝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같은 문제를 세로 식 말고 가로 식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다고 해도 단위 수가 많아지면 세로 식을 사용하지 않고는 해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 문제를 행위자 혼자서 풀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두 번째 조건에서는 곤란을

겪는 것일까?

이 질문을 탐구하는 열쇠가 바로 비고츠키의 ‘고립한 개인’이라는 분석 단위의 변경 아이디어에 있다. 비고츠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나와 내가 채용한 문화적 도구가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애당초 중추적인 ‘내’가 있어서 대상인 수학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세로 식’이라는 문화적 도구를 채용해서 문제 해결 활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만들어졌다”고. 서양철학의 ‘주체관’을 비판한 레비나스(Levinas)와 우치다 타츠루의 관점은 비고츠키 아이디어와 공명한다.

나는 예전에 ‘주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 적이 있다.

“우리는 에로스적인 관계에서 우로보로스(ouroboros, 자기 꼬리를 삼켜 버리는 용(뱀). ‘끝이 없는 뱀’이라는 무한을 상징하는 둥근 고리를 이룸—역자 주)와 비슷한 기이한 순환 구조 안에 갇혀 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능이고, 그 상대방의 관능을 부활시키는 것은 나 자신의 관능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능에서 주체의 근거는 사랑하는 자 안에도 사랑받는 자 안에도 없다. 에로스적 주체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권능의 용어로 관능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나의 주체성을 근거 짓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수동적 정황 혹은 사태이기 때문이다. 주체는 그 ‘자기동일성’을 자기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수동성으로부터 끌어낸다.”

— 우치다 타츠루,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에서

레비나스의 관점은 ‘주체’는 결코 스스로는 자기 완결이나 홀로 완결(self-contained)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누군가 그리고 무엇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모습을 갖춘다는, 비고츠키의 관점과 절묘하게 공명한다. 비고츠키는 ‘주체’를 개체나 개인이 홀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애당초 거기에 있던 어떤 ‘실체’라고 보는 주류 심리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이 특정한 어법이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치다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노동’이라는 활동에도 적용해서 고찰하고 있다. “노동에서도 ‘노동 주체’는 ‘자기동일성’을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누군가가 한 노동의 성과에 혜택을 입는 수동성으로부터 끌어낸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햄버거스테이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평소에 친분이 있는 비고츠키 마니아(손님)도 초대해서 함께 먹기로 했다. 그런데 비고츠키 마니아가 아버지에게 ‘햄버거스테이크’를 정말 당신 혼자서 만들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손님 : 햄버거스테이크에 사용한 양파는 당신이 길렀나요?

아버지 : 아니, 지난번에 마트에서 샀어요.

손님 : 재료를 다질 때 사용한 식칼은 본인이 만들었나요?

아버지 : 무슨 말씀을, 마트에서 샀지요.

손님 : 냄비는요?

아버지 : 그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고요.

손님 : 햄버거스테이크를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생각했나요?

아버지 : 아니, 요리책을 보고 했지요.

손님 : 그러면 햄버거스테이크를 당신 혼자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아버지 : 과연 비고츠키 마니아군요. 듣고 보니 지당한 말씀입니다.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리할 때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나 혼자 요리를 만들었다는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이고, 자신이 애당초 거기에 있었던 ‘실체’로서 확실함이 아니라 선현들이나 타인들의 도움(여기서는 양파를 만들고, 냄비를 만들고, 요리법을 만들어 낸)을 통해 비로소 주체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불확실함’이다.